

일본의 “고마쓰세이렌” - 온도 조절 소재 박막화에 성공

일본의 유명 염색 가공 전문 업체의 하나인 “고마쓰세이렌(小松精錬)”의 의복 내 온도 조절 소재인 “에어테크노(Air-techno)”는 그 동안 이 소재의 가공 두께가 15~20미크론(micron)으로 좀 두꺼운 편이었는데, 온도 조절 프로테인 미립자를 파우더화 함으로써, 종전의 1/10 수준인 2~3 미크론까지 온도 조절 소재의 막(膜)을 얇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.

“에어테크노”는 의복 밖의 온도에 따라 흡열·축열·방열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온도 조절 특수 프로테인 미립자를 초박막으로 섬유에 결합시켜 의복 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“이 소재는 삼한사온과 같이 추위와 포근한 날씨가 되풀이 되는 기후에도 아주 적절한 기능을 갖고 있다”고 한다. ♣